



60년의 흐름속에

너의 펜은 낡았으나 펜촉은 녹슬지 않았구나!

독자와 함께 60년의 세월을 기록해 온 광주일보!

한발 빠른 뉴스와 심층 취재로 더 성장하는 오피니언리더,

더 발전하는 광주일보의 60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

광주일보의 창사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

